

지역 소식통

부안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부안군은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으로 이원화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대상자(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에게 개별 문자가 발송되고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이다.

방문 접수는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이 해당된다.

신청대상은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상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전국 55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기관 등급평가를 받았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와 개방 활용, 품질, 기타 등 5개 항목 18개 지표를 평가하는 제도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공데이터법 신설 이후 최고점인 88.21점을 기록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종합 평균 점수 58.68점보다 높은 수준임을 평가받았다.

/정읍=김대환기자

세계 4대 식초도시로 도약

고창군, 농식품부 40억원 '발효식품산업 플랫폼 구축사업' 선정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발효식품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발효식품의 안정적 생산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상품화 등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핵심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2년간 국비 20억원이 투입된다. 식초 산업화를 위한 품질관리, 상품화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공유 가공시설이 들어선다. 또 발효식초 공동생산과 제조기

술을 지원해 농가형 소규모 업체들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초를 만드는 소규모 업체들이 시설 투자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고창군은 2019년 식초문화도시 고창 선포 이후, 지난해 북분자·식초산업 특구로 지정돼 식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발효식초 및 K-발사믹 산업

화를 위한 식초 산업 인프라 구축, 기능성 및 품질 균일화 인증기준 마련, 재분쇄를 위한 식초 아카데미와 찾아가는 식초교실 운영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유기농 고창군수는 "소규모 식초농가들의 소득향상과 새로운 식초시장을 개척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며 "미래문화산업으로 식초시장을 선점하고 입지를 강화해 세계 4대 식초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해리면 동호마을에서 풍어와 어민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풍어제가 열렸다.

'고창 동호 풍어제 열려'

해리면, 어민들의 무사안녕 · 만선기원

고창군 해리면 동호마을에서 풍어와 어민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풍어제가 열렸다.

3일 오전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동호마을 영신당에서 풍어제가 열렸다. 영신당은 구동호 마을에서 불출된 압벽지대에 위치해 바다를 향해하는 선박들을 살피고,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할 때 표류하지 않도록 향해 안전을 기원하는 제신당이다.

오전 11시 장수마을 노인당에서 음식 장만과 제례 준비를 시작하고, 12시에 영신당에 가서 제물을 차리고 제를 올렸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에서 지역어업인들과 주민들이 풍어를 비는 것은 중요한 행사다. 어업인들은 바다신에게 정성스럽게 고사를 지내고 안전하고 만선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했다.

행사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어촌관계자들과 마을주민만 참석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동호어촌계 이길연 어촌계장은 "지구온난화와 어장환경 변화, 어로장비 발달에 의한 남획 등으로 어려워지는 수산환경 속에 안전한 조업이 이뤄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풍어제를 열었다"면서 "청정 자연생태환경이 잘 갖춰진 어촌마을에 관광객들이 찾아와 즐거운 체험을 하고 올해도 안전사고 없이 만선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기농 고창군수는 "무사안녕과 만선을 기원하는 풍어제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잘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5회 고창농촌영화제 개최일자 확정

10월 28일부터 3일간 고창군 일원서 개최... 이문구 신임 조직위원장 선임

제 5회 고창농촌영화제가 10월28일부터 사흘간 고창군 일원에서 열린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농촌영화제 조직위원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문구(NH농협 고창군지부장) 신임 조직위원장을 선임하고, 제5회 고창농촌영화제의 개최일정과 장소, 주요프로그램을 확정했다.

고창농촌영화제는 선사시대부터 가장 찬란한 농생명문화를 꽃피웠던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국내 최초 농업·농촌을 주제로 개최한 영화제다.

2018년 제1회 고창농촌영화제를 시작으로 농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영화

상영과 체험행사, 인문학 강좌 등이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고창농촌영화제만의 대표 프로그램인 드라이브 시네마를 통해 관객들의 큰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신임 이문구(NH농협 고창군지부장) 조직위원장은 "제5회 고창농촌영화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안전한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민간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5회제를 맞이하는 고창농촌영화제는 10월 28일부터 3일간 고창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드라이브 시네마, 장·단편 영화 공모 및 시상

작 상영, 영화감독과 함께하는 무비토크, 영화 OST 라이브 공연, 고창 촬영 영화 로케이션 사진전, 농음고창 힐링 영화학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고창군청 박성기 농어촌식품과장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트가 되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고창농촌영화제 조직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관광객들이 고창을 찾아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3월의 정읍 인물, 독립운동가 '김진호' 불우현 '정극인' 선정

정읍시는 3월의 정읍 역사 인물로 태인 출신 독립운동가 '김진호', 가사문학의 효시 상춘곡의 저자 '정극인'을 선정했다.

동학·의병·호국 분야에서 선정된 김진호(1891-1945)는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 출생이다. 1919년 3월 16일 태인 장날에 김현근 박지선 송수연 송한용 등과 함께 군중이 장터에 모이자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나누어 주고 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는 시위를 벌이다 일본 헌병에 체포됐다.

이후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견원들과 연락하며 군자금 모집에 종사하는 등 항일활동을 전개했으며 1945년 8.15 광복 직전인 7월 24일 정읍에서 사망했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되었으며, 2016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 안장됐다.

문화예술·가타분야에 선정된 정극인(1401-1481)은 경기도 광주 두모포리(현 서울 옥수동) 출생이다. 1437년 세종의 흥천사(興天寺) 사리진 창건 명령의 부당함을 항소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귀양을 갔으며, 귀양에서 돌아와 처가가 있는 태인 고현내(현, 칠보)에 초가삼칸을 짓고 이름을 불우현(不憂軒)이라 하고 안빈낙도 생활을 했다.

1453년 늦은 나이에 주위의 권유로 과거에 응시 문과에 급제해 여러 관직을 거치고 1470년 70세에 태인으로 돌아왔다. 향리의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는 한편 1475년 '농중향음주'라는

친목계를 만들어 향리의 교화에 힘썼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인 '고현동향약'의 시초를 만들었다.

최초의 가사작품 '상춘곡', 모두 우리말을 사용한 '불우현가', '불우현곡'을 지었으며, 현재 칠보 무성서원에서 배향되었다.

시 관계자는 "정읍의 역사·예술적으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재조명되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읍의 인문학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역사 인물을 지속 발굴·조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정읍의 인물·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달 정읍을 빛낸 역사 인물을 선정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국토교통부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선정

부안군 계화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계화교 기능보강사업'이 국비를 지원받아 연내 추진하게 됐다.

3일 부안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2022년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을 했고,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게 됐다.

한편 권익현 부안군수는 "계화교 성능개선사업을 연내 완료해 주민안정과 교통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 시설물을 이른 시일 내 개선하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계화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계화교 기능보강사업'이 국비를 지원받아 연내 추진하게 됐다.

3일 부안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2022년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을 했고,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게 됐다.

한편 권익현 부안군수는 "계화교 성능개선사업을 연내 완료해 주민안정과 교통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 시설물을 이른 시일 내 개선하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